

신 아닌 신을 위한 변명

이종록 목사(한일장신대학교 신학부 구약학 교수)

1. 영과 영, 그 치명적 유혹

『영과 영』은 말 그대로 靈과 零에 관한 책이다. 오랜 세월 깊은 사유를 통한 종교적 통찰에서 비롯하는 이 제목은 매우 흥미롭고 매혹적이기까지 하다. 저자가 말하려는 것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한 글자 단어 조합이 우리로 하여금 평생 수행하게 할 만큼 엄청난 화두라는 점에서, 靈과 零이라는 제목은 이 책이 결코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저자는 이 책에서 방대한 종교적 주제들을 다룬다. 이 책을 읽다보면, 무엇보다 저자가 비판적 종교연구자이며 초월적 존재들과 소통하는 종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종교연구는 종교적 현상을 살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종교의 본질을 탐구한다. 숭한 경전들을 섭렵하고, 무수한 종교적 양상들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참된 종교를 찾는 학문적·종교적 고행을 한다. 저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터득한 종교적 진리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저자는 분명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전파하기에 힘쓴다는 점에서 “신의 사도”이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깨닫고 이를 실천한다면, 언젠가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당신을 감싸고 있는 고정관념의 끈을 잠깐 놓아두고 본연의 진리를 찾아보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저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진리への 향해로 함께 나아가길 권유한다.(한글판 7쪽)

이렇게 그는 우리 모두를 “진리への 향해”로 초대한다. 그렇다. 가짜가 판을 치고 가짜가 실재보다 더 진짜 같은 이 시뮬라크르(simulacre)의 시대에, ‘신’마저도 텅 빈 개념으로 변질되고,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자신의 탐욕으로 채우는 물신(物神)시대에, 그의 초대는 진정 신성하다. 나는 저자의 이런 생각에 공감하고 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몇 해 전에 기독교의 영적 타락과 탐욕스러움을 비판하면서, “영성(靈性)은 영성(零性)이다”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는 내 친구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동지이다. 내가 쓴 글을 인용하겠다.

영성은 영성(零性)이다. 세상적인 것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세상에 더 집착하는 그 지독한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성이다. 제 야망을 비전이라고 우겨대는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신이 이루실 새 시대 새 세상을 꿈꾸는 것이 영성이다. 세상 등지고 신만 바라보라고 하면서, 세상이치를 너무 잘 아는 지혜로움으로 인해, 오히려 세상에 더 젖어 살며, 감히 신의 뜻을 무효화시키는 그 담대함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신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며, 바보스럽더라도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영성이다.

그렇다. 저자가 말한 대로, 그리고 내가 절감하는 대로, 영성(靈性)은 영성(零性)이다. 저자는 온통 “영”에 매달려 있다. 물론 나는 저자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 나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육체, 정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로를 느끼는 육체와 정신은 죽는다. 그러나 영원으로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원

히 존재할 영은 남을 것이다”(한글판 5쪽)라는 생각에는 반대한다. 나는 구약성서학자이고 히브리적 사유방식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인간을 철저히 몸을 지니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생명체로 본다. 그래서 “몸의 신학”을 전개한다.

그러나 “영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바로 너다. 이들을 너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베풀어라”라는 각성적 경구에는 전적으로 찬동한다. 이렇듯 이 책은 한편으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맑은 깨달음과 통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내 시선을 사로잡고 놓지 않는다.

자신들의 세력 확장에 악영향이나 손실을 준다는 이유로, 진리를 설파했던 종교 창시자들의 숭고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말살하려는 기도가 역사 이래 끊임없이 시도되고 이어져 왔다. 왜곡되고 뒤흔들린 가르침 때문에 이제는 진실과 가식의 구분이 어려워지게 되었다.(한글판 4쪽)

이것은 내 생각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나는 내가 속한 기독교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종교들이 이런 형국이라고 여기고 한탄한다. 특히 한국기독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애통하는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는 그 본질을 망각하고 왜곡함으로써 이미 종교적 차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영(靈)은 영(零)인데, “이승에서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문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근간”(한글판 143쪽)인데, 한국기독교는 이미 영(零)을 영(囿)으로, 즉 “탐욕의 감옥”으로 대체했다. 영(靈)은 영(永)이어야 하는데, 저자가 말한 대로, 본질을 상실한 종교는 이미 그 효용가치를 상실했고, 오래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릇된 종교는 오히려 사악하다. 종교가 사악해지면, 그것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2. 구약성서 비판

『영과 영』은 “존재의 본질”로 시작해서, “사후세계”, “깨달음”, “올바른 믿음”, 그리고 “올바른 삶”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저자가 아무리 종교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고 해도 종교적이다. 이런 특징은 저자가 “존재의 본질”로 시작해서 “깨달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후세계”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저자는 현실 종교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각을 한 치도 누그러뜨리지 않는다. 저자는 어떤 종류의 허위나 불의를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허위를 밝히고 불의를 드러냄으로써 진실을 만방에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이 책이 나를 사로잡는 가장 큰 이유는 『영과 영』이 “구약의 문제점”이라는 부록으로 끝맺는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여러 종교를 비판하면서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르침을 밝히려고 애를 쓰는데, 유독 기독교 성서, 특히 구약성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나는 기독교 목사이고, 신학대학에서 성서, 그것도 구약성서를 가르치는 신학 교수이다. 그러니 저자가 성서, 특히 구약성서에 대해서 몇 마디라도 한다면, 내가 그것을 놓칠 리 없다. “만약 신이 구약의 여호와와 같다면, 제대로 된 신이 될 수 없다”(한글판 105쪽)는 식의 구절을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는가. 물론 나는 저자가 구약성서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비판할 점들도 많다. 그러나 그가 말하려는 원론적인 문제제기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저자가 비록 구약성서를 때때로 오해하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의 겉모습에만 매달리는 인상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 역시 기독교와 성서를 비판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영과 영』은 내 연구와 연관성을 갖는다. 내가 쓴 글을 읽으면, 그 연관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오용(誤用)했다. 특히 근대에 들어오면서 서구 기독교회는 선교 제국주의에 사로잡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았는데, 그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았으며, 다른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데에도 성경을 인용했다. 아메리카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인디안들을 학살하고 그들로부터 땅을 빼앗고 국가를 세우면서도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추악한 행동을 합리화했고,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도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성경을 통해서 정당화했다.

저자는 구약성서가 보여주는 비종교성, 폭력성, 허위성, 조작성을 구약성서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폭로하고, 구약의 폐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그는 구약성경이 오히려 예수의 훌륭한 가르침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한글판 361쪽). 이것은 저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그 주장은 분명 타당성을 갖는다. 그래서 나는 구약성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3. 신 아닌 신

지금까지 이 글에서 나는 『영과 영』을 나와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내가 공감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살폈다. 이제는 구약성서학자로서 영과 영이 제기하는 비판에 답을 하려고 한다.

나는 신학자이다. 그런데 “신에 관한 학문”인 신학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이것이다. 성서, 특히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신이 과연 신인가?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신의 위대하심보다는 신을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이다. 신은 한 번도 제 모습을 역사 전면에 드러내 보인 적이 없다.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절한 신앙고백 속에서만 비로소 신이 되고, 역사 전면으로 나선다. 그러니 전지전능하기는커녕 무능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분, 인간들이 신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결코 신일 수 없는 분, 그분을 어찌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바벨론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삶을 송두리째 앗아버리는 그 비참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성전이 짓밟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철저히 침묵하시는 분, 제국주의자들이 행하는 침략을 방임함으로써 스스로 역사주관자이기를 포기하시는 분, 그 이해할 수 없는 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주로,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끊임없이 갱신해야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래와도 같은 분이기 때문이다. 손으로 모래를 움켜쥐면, 모래가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더 힘을 주면 줄수록, 모래는 틈새로 다 빠져 나가고, 나중에 손에는 모래 흔적만 남는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신이 바로 그렇다. 분명한 사실은 구약성서의 신은 결코 인간 손아귀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힘을 줘서 모래를 움켜쥐면 질수록 모래가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듯이, 구약성서의 신도 우리가 신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를 빠져나간다.

그러니 어떻게 신학이 가능할까? 신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포착할 수 없는 그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구약성서를 읽어보면, 구약성서의 신이 신이기를 포기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들

로 가득하다. 전지전능하다는 분이 자기를 섬기는 백성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다. 신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지 못했다. 고대 신의 세계에서 성서의 신은 언제나 마이너였지 메이저 리그에 들지 못했다. 국제정세를 비롯해서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자기 백성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뜻 하나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는데, 어찌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약성서를 읽다보면,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고, 진멸(盡滅)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신이 할 수 없는 매우 거친 말이다. 그런데도 신은 그 격한 성격을 참지 못하고 다 드러낸다. 이것도 신 자신이 거룩한 신이기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이 보여주는 변덕스러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신은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고 펄펄 뛰다가,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애간장이 녹는 아픔을 겪는다. 신이라면 시종여일 변함이 없어야 할 텐데, 이렇게 변화무쌍해서야 어디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인간들이 하는 행동에 일희일비하는 가슴여린 그분, 그 지독한 파토스로 몸살을 앓는 그분을 어찌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신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서, 특히 구약성서의 신은 “신 아닌 신”이다. 그 신은 “아직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소리친다.

나는 아직 신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르고 달래며
“당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겨도
나는 아직 신이 아니다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길 없는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는 한
나는 아직 신이 아니다

세상 부귀 영화 명예와 권세
다 나를 위해 버리겠노라 다짐해놓고
정작 신의 이름으로 출세하려는 자들이 있는 한
나는 아직 신이 아니다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제 목숨 스스로 끊고 마는
한 맺힌 이들이 있는 한
나는 아직 신이 아니다

끝없이 욕망을 부추기며
오로지 제 욕심 채기기에 급급한
맘몬 숭배자들이 있는 한
나는 아직 신이 아니다

내놓을 것 하나 없어
기 펴보지도 못한 채
날마다 놀려 사는 이들이 있는 한

나는 아직 신이 아니다

나를 사랑의 신이라 칭하면서
제 왕국을 건설하고자
신의 이름으로 살인하는 자들이 있는 한
나는 아직 신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신이 아니다
그대들이 아무리 나를 신이라 해도
아직 나는 신이 아니다
아직은.

그렇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신이 아니다. 신이 신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신은 신이기를 포기한 채, 이 땅에서 우리들과 함께 사실 것이다. 우리가 신의 뜻을 따라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무능하게. 그러니 그분은 아직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그 신은 진정한 신이다. 우리가 규정해놓은 그 기준을 넘어서, 전지전능과 무소부재와 영구불변이라는 관념적 허울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신이다.

이제 글을 마무리 하려 한다. 『영과 영』이 신의 자리마저 거부하는 진정한 신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서는 신의 말씀이 아니라, 신에 관한 인간의 말이다. 그래서 구약성서에는 종교적 본질을 설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구약성서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서가 말하는 모든 것이 신에 관한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저자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성서는 고스란히 안고 있다. 그 문제들에서 벗어나려면, 구약성서의 참된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종교적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성서가 말하는 신이 아닌, 진정한 신과 소통해야 한다. 『영과 영』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확신한다.